

회암사지 출토 유물 소유권 분쟁 재검

사찰 경내지 출토 유물의 소유권을 놓고 양주 회암사(주지 각원)와 문화재청(정장 유희준)이 법정에서 맞붙는다. 출토 유물은 대개 국가에 귀속되는 상황인데다 소유권이 법정에서 가려지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옛 회암사와 현 회암사 같은가

회암사 “청동발우·암막새 등 유물 27건 반환 요구”

문화재청 “소유권 주장 앞서 역사적 연속성 입증해야”

소송은 지난해 12월 29일 회암사 측이 문화재청과 양주시청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회암사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유물은 사적 제128호 회암사지에 있는 옛 돌, 폐불대, 돌계단 및 석축 등 지상 유물 4건과 ‘楡巖(회암)’이라 새겨진 청동발우, 각종 칠기류, 백자 등 출토유물 23건이다. 이들 유물은 현 회암사가 소유한 양주군 회전읍 회암리 18·19·20번지에서 나온 것들이다. 즉 회암사는 ‘역사 또는 기록 등에 의해 당해 사찰과 밀접한 연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 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상의 경내지 출토 유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① 회암사지 전경. 붉은 실선내 지역이 회암사 소유지다. 회암사는 소유지에서 나온 유물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문화재청은 회암사의 연속성을 문제삼아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② 회암사 소유의 무학대사 부도(보물 제388호)와 석등(보물 제399호). ③ 회암사가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유물 가운데 하나인 3단지 출토 암막새.

매장문화재는 모두 국가 소유

소송을 제기한 회암사는 회암사지 뒤편 천보산 자락에 위치하며, 회암사지 1만여 평 가운데 3천여 평을 비롯해 지역 일대 15만여 평의 산림과 지공·나옹·무학 스님의 부도 등 7점의 지정문화재를 소유·관리하는 조계종 사찰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회암사의 연속성’ 여부다. ‘소송을 제기한 회암사’와 ‘절터만 남은 옛 회암사’가 과연 동일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회암사는 매장문화재의 소유자가 판명된 경우에 소유자에게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 제46조를 근거로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문화재청은 지금의 회암사와 옛 회암사의 연속성을 입증해야만 반환할 수 있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매장문화재는 원칙적으로 국가 소유로,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라고 전제하 뒤, “현 회암사가 매장문화재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먼저 옛 회암사와의 연속성을 입증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회암사의 연속성 문제가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회암사지로부터 약간 떨어진 곳에 지금의 회암사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과 역사적으로 단절된 의혹이 있다는 점 때문이다.

회암사지가 아닌 곳에 회암사가 재건됐다는 지적에 대해 회암사 측은 동의하지 않는다. 현 회암사가 회암사지의 뒷산에 불과 500m 남짓한 거리를 두고 있어 별개의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회암사지 발굴이 진전될수록 사역은 더 없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별개 지역으로 분다하더라도 회암사지 ‘중심’에 절을 재건할 수 없었던 역

사적 상황은 감안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조 38년(1605년) 회암사에 선왕의 어실을 조성하며 접역을 면제시켰다가 사헌부의 반발을 산 일 △인조 4년(1626년) 회암사에 불사를 일으킨 향산군 이정이 파직된 일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조선시대 역불책으로 인해 폐허가 된 회암사지에 회암사를 재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 같은 역불책에도 불구하고 회암사지에 대한 회암사의 토지소유권이 인정돼 있다는 점은 회암사의 역사적 연속성을 주장하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총독부의 토지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1911

년 회암사지 일부와 배후 산림이 현 회암사에 속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회암사지 일부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제일명당으로 꼽히던 회암사지 보광전 일대 부지를 대원군이 빼앗아 자신의 가묘를 설치한 때의 일이고 보면, 구한말까지만 해도 현 회암사는 회암사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해온 셈이다. 17세기 중엽 회암사가 전소된 이래 1827년경 지금의 회암사가 재건되기까지의 역사적 연속성을 입증해줄 자료는 없지만 어떤 형태라도 회암사가 유지돼왔음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 회암사 측 입장이다.

그밖에도 회암사 측은 선교양종으로 정리된 조선시대 교종본산으로서 건재했으며 연속성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봉선사가 회암사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해온 점과 서산대사 후손으로서 사자전승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법맥의 연속성 또한 회암사의 연속성을 뒷받침하는 사실로 강조하고 있다.

법맥으로 연속성 진단해야

회암사의 이번 소송을 두고 있는 봉선사의 혜문 스님은 “사찰의 연속성은 구조물이 아닌 구성집단에서 찾아야 한다”며 “속가에서 호적이나 혈연이 연속성 판단의 기준이라면 불교에서는 사자전승을 통한 법맥이 그에 해당하는데, 이 같은 특수성이 감안되지 않는다면 조계종의 존립 근거마저 흔들리고 말 것이다”며 “회암사의 연속성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조계종 한 관계자는 “기존 유물과의 관련성이 명백한 경내지 출토 유물에 대해서는 소유관계 근거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인 처사다”며 “합리적인 판결이 나와 경내지 출토 유물을 일반적으로 국가귀속처리하는 관행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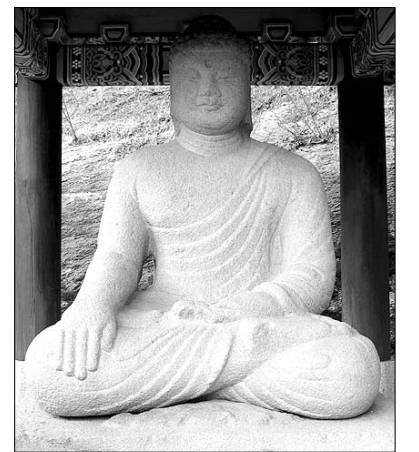
소송은 현재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으며, 재판부가 양자의 입장을 경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7월 10일로 예정돼 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청와대 석조여래좌상 균열현상

불교중앙박물관 개관 특별전 전시 힘들듯

청와대 석조여래좌상(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4호)의 훼손상태가 심각해 불교중앙박물관 개관 특별전 전시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 양식을 띠고 있는 이 석조여래좌상은 김영삼 대통령 당시 폐기 의혹을 받으며 화제가 된 석불로, 지난해 유희준 문화재청장도 ‘보물급’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청와대에 있는 석조여래좌상. 팔과 어깨, 등허리 부위에 균열이 생겨 보존처리가 시급하다.

조계종의 대어 요청에 따라 이뤄진 최근 실사에서 서울시 문화재위원들은 “훼손상태가 심각해 보존처리가 시급하며 이윤할 경우에 추가적인 파손이 우려된다”는 소견을 냈고, 이에 따라 불교중앙박물관 개관 특별전에 청와대 석조여래좌상을 전시하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서울시 문화재위원으로 실사에 참여한 동국대 문명대 교수는 이 석조여래좌상에 대해 “사실적인 양식을 반영한 석굴암 본존불 계열의 대표적인 통일신라시대 불상

으로, 경주남산에서도 찾기 어려운 수작”이라고 평가하며, “불상의 팔과 어깨, 등허리 부분에 파손상태가 심각해 보존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고려초조대장경집성 출간기념 봉정식

고려대장경, 5월 28일 여주 신록사에서

11세기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 대장경인 초조대장경 집성 및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정명·이학대)가 5월 28일 고려초조대장경집성 4권 출간을 기념하는 봉정식과 학술세미나를 여주 신록사에서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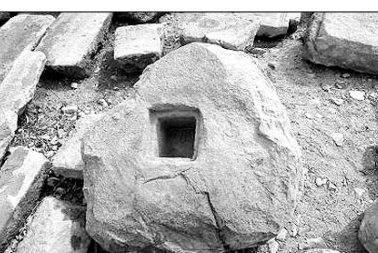
이번에 출간되는 초조대장경은 국내의 현존하는 2700여권의 초조대장경 가운데 학술조사를 거친 국내 120여권과 일본 난젠지(南禪寺)의 80여 권을 집성한 것으로, ‘한일공동 초조대장경 디지털 DB 구축 및 영인 출판’ 사업의 첫 성과다. 출간되는 4권에 해당하는 자료는 디지털 이미지로 가

공돼 7월경에 인터넷으로 서비스된다.

이 같은 성과를 기념해 열리는 학술세미나에서는 ‘초조대장경 디지털 DB구축 조사 연구’를 큰 주제로 김성수 교수(경주대)의 ‘고려 초조대장경의 성립과 간행 배경 및 주제 서지적 연구’와, 남경희 교수(경북대)의 ‘초조대장경 조사 자료의 형태 서지적 분석’ 등이 발표된다.

대장경연구소장 정명 스님은 “초조대장경집성은 우리나라에서 또 하나의 대장경을 간행하는 것과 같다”며 “고려시대 불교 문화의 면모를 그대로 간직해 초조대장경의 종교문화적 가치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02)923-7994

군위 인각사서 고려시대 목탑심초석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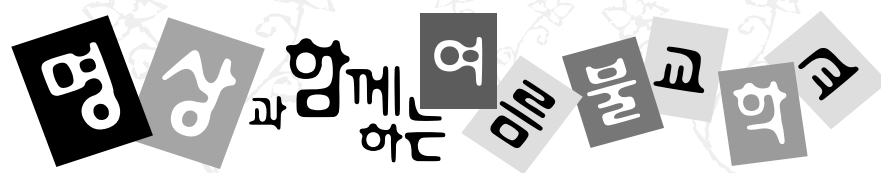
일연 스님이 주석하던 경북군위 인각사에서 고려시대 건물지와 목탑심초석(사진)이 확인됐다. 조계종문화유산발굴조사단(단장 정경)은 군위군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1월부

터 2005년 4월까지 인각사 극락전 부지를 발굴한 결과 정면 3칸, 측면 3칸 구조의 금당지를 지금의 극락전 90cm 아래 층위에서 발견했다고 최근 밝혔다.

극락전 주춧돌로 사용된 석재 가운데 일부가 목탑 심초석이었던 점도 밝혀졌다. 지금까지 인각사 목탑에 관한 기록이 발견된 점은 없었으나, 목탑 심초석이 발견됨으로써 인각사에도 목탑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사남쳐 ‘박영준 교수의 과학기술과 불교’ 쉽니다.

제39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



- 1. 일 시 : 불기2549년 6월 4일(토) 17:00 ~ 6일(월) 13:00 (2박 3일)
- 2. 장 소 : 숙리산유스텔라 (충북 보은 소재)
- 3.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 4. 주 관 :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협회
- 5. 예상인원 : 500명 (선착순 마감)
- 6. 연수참가비

미리접수	당일접수	군중병제주도, 울릉도	해외거주자
60,000	70,000	50,000	무 료
- *입금하신 참가비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재료비 포함가격)
- 7. 지 급 품 : 연수자료집, 기념품
가방 외 / 8만원 상당
- 8. 개인준비물 : 필기구, 간편복(여유복), 세면도구
- 9. 접수방법 www.dongja.org
☎ 051-864-4569 / 4570

강의	주요 연수 내용	성명	비 고
강의1	우리는 왜 부처님을 믿는가?	지광스님	서울 농인선원 주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 수상
강의2	7차 교육과정에 따른 다양한 어류박물관교 및 진철명	강 낙 단 최 위 유 이 이 강 회 김 미 김 광 호	부산어대 교수, 불교환경연대, 선화학교 교장, 연신초등학교 교사, 육원유치원 원장, 대한불교교과대학 부학장
강의3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어류박물관교의 실제	유 지 신 최 위 김 이 이 강 회 김 미 김 광 호	선화학교 교장, 불교환경연대
강의4	수리수리마하수리 - 미술의 세계	남 기 단	육원유치원 원장, 동주대 유아교육과 교수 (주미술센터 강사, 미술경력 5년 총용 및 뜻대들드 공인)
강의5	어린이들에게 응용할 수 있는 초기불교수행법과 실제	각목스님	초기불전연구회 지도부사
강의6	어린이에게 적합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철호스님	전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협회 회장, 선유도항 대표, 사인 구룡사 주지
강의7	즐거움 모작활동 놀이 - 우리의 마음을 모아	조 상 호	가람유니캐이션 대표
강의8	어린이 및 청소년과 연계된	정영스님	광정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여서원선원 선원장, 전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협회 회장
강의9	어류박물관교를 위한 찬불가	정 유 악	종정소리, 어류박물관교에 활용한 찬불가
강의10	캠프활동	분 회 교 박 국 국	본회 교육국
강의11	이 시대 어린이 지도자로 나서는 우리들의 사명	철봉스님	청소년 전통문화수련원 무예원 원장, 어린이지도자들의 사랑과 자애



수신토종오가피

禮獻

禮獻(예헌)이란?
명절이나 국가의 경사가 있을 때 국영에게 축하의 뜻으로 바치던 진상품을 일컫는 말

24년의 기다림!
저희는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24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 예헌 禮獻

제품료 평가받겠습니다.
지난 2003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규격과에서는 연구논문 통해 오가피의 주요성분인 Acanthoside D의 기준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은 이 기준치와 비교하여 3~5배 이상 Acanthoside D 함량이 함유된 원료로만 생산됩니다.

오직 900배만 매일 한정판매합니다.
월 10만갑을 생산할 수 있는 저희 수신오가피에서도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은 1달에 오직 9002만 생산할 수 있습니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지 생량수씨가 심황을 기를어 키운 24년생이상의 오가피만을 원료로 사용하며만듭니다.

수신오가피의 저존심을 곁들입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에는 목재를 방지하는 홀로그램에 매달 001번부터 900번까지의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선물하시는 분께 그 가치와 품격을 인정드립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에는 저희가 준비한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문의 및 무료자료 신청 02-968-0005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도어가 서번호 교수가 직접 제작된 분청다리를 드립니다.